

하느님이 건축사에게 보낸 편지

A letter from God to Architect

소향 형!

그간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사고하고 계십니까?

흰 구름 둥 둥 / 구름은 가고

이제 다시 제(弟)는 시혼(詩魂)을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또는 멀리로 나들이 간 시혼! 복사꽃 피는 마을, 환하니 복사꽃 피는 마을을 찾아 혼자 나들이 간 시혼을 나는 어서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 별을 지나면 저기 / 남향(南向)받이 산기슭

그 다소곳한 마을에 / 복사꽃, 오 오!

화안히 그 / 복사꽃은 피리니.

출근길, 눈이 시리도록 환히 핀 백목련을 보노라면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 로 시작되는 박목월의 '4월의 노래' 와 함께, 60년대 고교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청록파 박두진의 서간문 '영동을 지나며' 가 생각난다. 가난했기에 읽을 책이 부족했던 그 시절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생각나는 명문이다. 목월은 '4월의 노래' 에서 편지를 읽고 쓰는 대목을 집어 넣어 혼자이지만 혼자자가 아닌, 풍요로운 봄을 함께 나누고 즐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것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편지로 만들어진 소설이기에, 편지와 소설읽기의 2중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 시절 '깃발' 로 유명한 청마 유치환은 동료교사 이영도 시인에게 5,000여 통의 사랑 편지를 쓴다. 청마 사후 출판된 책 속에, 당시 젊은이들이 애송하던 편지가 있다.

사랑하는 것은 /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위의 편지가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쓴 수많은 편지인데 반하여 400년 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영원히 보내면서 쓴 단 한통의 애절한 사랑편지도 있다.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께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나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며 사랑할까요?'

31살 남편의 관 속에, 애뜻한 부부의 사랑을 담아낸 원이 엄마의 편지는 세월의 시공을 뛰어 넘어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편지의 역사는 길고도 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성경의 신약은 27권 중 21권이 편지로 되어 있으며, 그 역사는 또한 2,000여년이나 된다. 우리네 선조도 많은 편지를 남겼다. 유배기간이 길었던 다산 정약용과 완당 김정희는 수많은 편지를 썼으며, 그 속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부자지간의 애정에서부터 국제적인 문제와 금석학, 철학사상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책을 이루고 있다.

“이제 하느님께서 ‘정부는 썩고, 건설사들은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설계검업을 시도하나, 이는 반문화의 무식한 소치라며 이들을 혼내주고 후진국에도 없는 검업은 절대 없게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습니다. 수년 후 다른 나라처럼 설계비도 공사비의 10% 이상을 받을 것이니, 실력이나 연마하시오. 그대들 건축사에게 권할 것은 이뿐이니, 노력하시오.”

선조들의 편지 중에는 ‘자신이 자신에게 쓴 편지’가 특이한데, 주인공은 고려 최고의 문장가 이규보이다. 그는 명성과는 달리 40여세가 될 때까지 등용되지 못하자 그 억울함을 자위하고자 ‘선인(仙人)을 대신하여 나에게 부치는 편지’를 썼다. 안대회의 『선비답게 산다는 것』에 번역된 편지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축약해 보면

“옥황상제(玉皇上帝)가 계시는 자미원의 대신(大臣) 아무개는 금동천사를 보내 이규보 선인께 편지를 올립니다. 그대는 우리와 함께 상제님을 보좌하던 높은 신분인데 그 공로가 큼으로 고려국에 인간으로 태어나,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부귀공명을 누리고 오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고려국을 돌아본 사자의 보고에 의하면, 그대는 요즈음 마구 술잔이나 기울이며 미친 짓거리나 일삼고, 상갓집 개같이 공상맞은 선비행세로 지난다지요?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모두 당신의 문재(文才)와 인품의 출중함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등용되지 않으니, 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십니까? 이 모든 것이 어진 이를 질투하고 뇌물이나 좋아하는 고관대작들의 비뚤어진 심성과, 아침하고 빌붙고 뇌물 쓰는 따위를 싫어하는 당신의 끈은 품성이 빚어낸 결과겠지요?”

“우리는 사자의 보고를 들은 후, 어진 이를 질투하고 저보다 유능한자를 꺼리는 고려국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여 줄 것을 상제께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곧바로 문책과 치죄를 할 것입니다. 이제, 옥당(玉堂)이 깊다고 들지를 못하겠습니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이 높다고 오르지 못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홍진(紅塵)의 하계에서 한바탕 영화를 즐기고 계시는 동안 저희는 선인께서 돌아오실 날을, 상제께서 하사하신 감로주 갖춰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공명은 이루지 않을 수 없으나 부귀는 오래도록 탐할 수 없는 법, 우리 그대에게 권할 것은 이뿐이니, 노력하시오.”

불운한 자신을 위로하고자 스스로 쓴 편지대로, 그는 출세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문장가로 지금도 숭앙받고 있다.

지금 건축사들은 건설사의 설계검업 시도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건교부는 드러내 놓고 건설사편이고, 건설사들은 막강한 재력과 그룹사의 힘을 배경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어디 하나 기밀 곳이 없다. 이제 건축사도 내일의 희망과 용기를 갖기 위하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 봄 직하다.

“하늘의 천사장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한국건축사께 이 글을 올립니다. 하느님은 창조주(The Architect)로서 하느님 나라 곳곳을 디자인한 한국 건축사들(Architects)에게, 멋진 기량으로 국민민복과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며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라고 보냈지만, 오늘 지구를 다녀온 천사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건축사는 준공식에서 감사패는커녕 앓을자리도 없어 상갓집 개가 되었고, BTL, 텀키 등으로 생존의 위기가 계속되는데도 정부의 관리들은 건설사의 설계검업 로비에 한통속이 되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면서 건축을 부동산으로만 보고 있다지요? 막강한 건설사 파위에 외톨이가 되어 마음을 달래려고 술잔이나 기울이는 신세라지요. 이제 하느님께서 ‘정부는 썩고, 건설사들은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설계검업을 시도하나, 이는 반문화의 무식한 소치라며 이들을 혼내주고 후진국에도 없는 검업은 절대 없게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습니다. 수년 후 다른 나라처럼 설계비도 공사비의 10% 이상을 받을 것이니, 실력이나 연마하시오. 그대들 건축사에게 권할 것은 이뿐이니, 노력하시오.” ■